

겨울엔 따뜻한 광양으로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



광양시가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는 12월, 따뜻한 겨울을 여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12월~내년 2월 말 매주 일요일 광주 유스퀘어·송정역 탑승 전남도립미술관·옥룡사동백나무숲·배알도 섬 정원서 힐링

남도한바퀴 '마음에 심표 찍는 광양주말여행'은 전남도립미술관, 옥룡사동백나무숲, 김시식지, 배알도 섬 정원 등에서 광양의 따뜻한 겨울 햇볕을 충전하는 감상여행이다. 광양주말여행은 매주 일요일 광주 유스퀘어(8시 30분)를 출발해 광주송정역(9시)을 경유해 광양 원도심의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등을 관람한다. 이어 서천면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점심을 즐긴 후, 옥룡사동백나무숲, 김시식지, 배알도 섬 정원 등 대표 관광지를 투어하고 유스퀘어(18시 50분)에 도착하는 남만코스

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이경모 사진전 '역사가 된 찰나' 등 품격 높은 전시로 연일 국내외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는다. 광양예술창고에는 사진가 이경모의 카메라,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이 있어 전남도립미술관 이경모 사진전과 함께 작가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준다. 서천면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취향을 살린 따뜻한 점심 식사를 즐긴 후, 옥룡사동백나무숲, 김시식지, 망덕포구의 정병욱 가

옥, 배알도 섬 정원 등을 관람한다. 옥룡사동백나무숲은 터만 남은 옥룡사지와 뻗뻗하게 둘러선 1만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어울려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실현한 곳으로 겨울 햇살이 한가로이 노니는 곳이다. 광양 김시식지는 세계 최초로 김을 양식한 역사와 장소를 기리는 공간으로 김이라는 명칭에 얽힌 흥미진진한 스토리 등이 기다리고 있다. 운동주의 율필시교를 간직해 운동주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부활시킨 '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욱 가옥'은 나라의 소중한 유정의 가치를 새삼 일깨운다. 2022 한국관광공사 안심 관광지 25선으로 부상한 배알도 섬 정원은 알차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바다 위를 거니는 특별한 공간으로, 겨울 주말을 아름답게 각인시켜 준다.

이용요금은 24,900원(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이며 온·오프라인에서 예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안내와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http://citytour.jeonnam.go.kr>), 남도한바퀴 콜센터(062-360-8502), 남도한바퀴 카오톡 채널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 겨울테마 '마음에 심표 찍는 광양주말여행'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여행프로젝트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겨울에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예술, 문학, 역사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햇살 가득 광양주말여행을 계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김현근 기자

순천시,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서 '대상' 수상

노관규 순천시장 특강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 제시한 공로 인정

순천시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페스타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국내 최초 로컬 콘텐츠 박람회로 문화·관광·공간 등 전국 지자체 우수 콘텐츠를 공유하는 장으로 개최됐으며, 노관규 순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풍요로운 강연도 이어졌다. 이번 대상 수상은 노 시장이 기초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특별 초청되어 '순천만 전봇대를 뽑은 그남자!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지역의 발전 모델을 기획했던 그간의 과정과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상을 수상한 노 시장은 14년 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이는 국내 첫 정원박람회(2013년), 제1호 국가정원 지정

(2015년), 호남3대도시 발전 등이 차례로 성사된 배경이 됐다. 또한 10년 만에 열리는 내년 4월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세계 최초 랍사르 순천만 어싱길과 시내 뱃길 복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에 이어 또 한번 대한민국 최초로 도전하고 있다. 특히 25일 페스타에서 노 시장은 세계 최초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를 283개를 뽑은 사연을 전격 공개하며 교통, 주거, 인구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 위기에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시 모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모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시민 이모씨는 "순천만 전봇대를 뽑았을 때의 감동이 아직까지 있다"며 "순천에서 14년 전에 했던 일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



을 보태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모학생은 "다른 도시들이 산업을 선택할 때 순천은 생태가 기반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강연 내용이 인상깊었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꼭 가보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상식에서 "지역 콘텐츠를 육성해 지역이 잘 사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사에서 순천이 대상을 차지해 무척 뜻깊다"라며 "이제는 지역소멸 시대로 도시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인접도시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주시-남해군, '행복한 동행, 희망찬 미래' 자매결연

여주시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식...해저터널 건설로 상생발전 도모

여주시와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29일 든든한 자매의 연을 맺었다. 여주시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주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 김영규 여주시 의회의장, 임대식 남해군의회의장, 양 기관의 사회단체대표들과 간부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건설 이후 생활권 통합,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여주시와 남해군은 지난해 9월 해저터널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 공동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해왔다. 특히 두 지역이 해저터널을 통해 30분대로 오갈 수 있어 공동 생활권의 확대로 동서 통합

을 선도하고, 남해안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여주시와 남해군은 행정·경제·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우의를 증진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기명 여주시장은 "오늘 소중한 자매의 연을 맺은 만큼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군'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빛나는 남해안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보성군, 2022년 기초연금 사업 우수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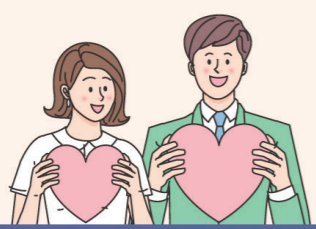
450억 예산으로 13400여 명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보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2년 기초연금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1,20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227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초연금 수급률 및 환수율 등의 사업실적과 복지부 업무 협조 실적 등을 합

산해 전국 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성군은 기초연금 제도 적극 홍보를 비롯해 만 65세 도래자에 대한 사전 신청, 거동불편 어르신 방문 신청, 거주불명등록 미수급 어르신 발굴 등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